

ESG,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ESG란 무엇인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다. 즉 기업경영 측면에 있어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인 것이다.

재무적 관점에서의 경영전략 도출과 재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ESG 연계 사업 추진 등 비재무적 성과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기로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가 기업 목표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ESG 연계 등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대기업 CEO들 역시 지속가능경영을 기업 목표로 포용적 변형을 강조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ESG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한 기업은 바로 블랙록(BlackRock)이다. 7조 달러 이상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최고 경영자(CEO)인 래리 핑크가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투자 결정 시

단순한 재무적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블랙록은 화석연료 관련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언에서 끝나지 않음을 보

내외 일류 기업들은 지속가 등급을 획득을 위해 과감한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탄소

‘탄소 제로화(Carbon Net Zero)’ 선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Social) 측면에서는 기업 내 임직원들의 만족 및 다양성 보장, 기업 외적으로는 고객만족,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기술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등이 주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와 기업윤리 보존 등이 중요시된다. 또한 주주들에게 만족스러운 배당 및 정보 공시를 하는 것 또한 역시 ESG 중 G 지배구조에 포함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투자에 ESG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25%를 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ESG 관련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며 ESG 투자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

에 블랙록은 화석연료 관련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언에서 끝나지 않음을 보 기업, 기관 투자 시 적극적

을 행사하며 ESG 투자 확대 능성과 ESG 평가에서 상위 탄소 배출 절감을 시도하고

를 아예 배출하지 않겠다는

ESG, 선택이 아닌 필수다!

ESG 논의가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며, 이전부터 많은 기업의 관심사였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CSR은 지역사회 사회공

현 및 기업의 준법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은 기업의 '필수'적인 역할이기 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부가적인, 소위 말하는 '좋은 활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그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넘어서 최근은 비재무 및 재무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전사 경영전략에 기반이 되는 ESG가 기업의 필수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ESG가 기업 운영에 깊숙하게 스며든 것과 동시에 ESG 논의에서 고려되는 주체들 역시 확대되었다. ESG 고려에 흔히 등장하는 개념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이는 기업경영에서 주주 외에도 시장 속 모든 이해관계자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업의 관심사는 단순히 주주가 아닌, 시장 속 소비자, 협력사, 정부, 직원, 더 나아가 환경 및 사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이니셔티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에게는 더 다각화된, 그리고 고차원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이윤 창출 외에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비재무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단순히 재무제표로 평가받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 부문의 경우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유럽 그린딜 등 국제 차원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해 가장 뜨거운 어젠다(Agenda)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린 경영', '그린 금융' 등

환경이 고려되진 않았던 분야까지 앞에 '그린'이라는 말이 환경 보호 이슈를 중요한 트렌드가 우 기존의 CSR과 있는 것 같지만, 기업 책임을 바탕 기업의 가장 전통 나아가, 자사의 한 인권적, 윤리 끌고 들어온 것이 부문의 경우 전반



그림 | ESG 개요

이 되는 만큼 기업의 ESG 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가중치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 사회 부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량화가 이루어져 왔다. 지배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이사회에 대해 딜로이트의 재닛 파우팅은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니즈에 맞게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 방편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ESG 각 요소가 균형을 이루며 총체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배구조는 기업이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 기반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못했던 분야까지 앞에 '그' 붙음으로써 전 분야에 걸쳐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된 것이다. 사회 부문의 경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동시에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으로 한다. '이윤 추구'라는 적인 목적에서 한 발짝 더 인적 자원과 지역사회에 대 적 고려를 기업경영 자체로 라고 할 수 있다. 지배구조 적인 ESG 경영을 위한 기반

ESG_환경(Environment)

환경(Environment) 부문은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생물의 다양성, 물 부족 해결, 에너지효율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이의 지표로는 ISO14001과 같은 환경경영인증,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의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환경성과 평가 체계 구축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 부문은 ESG 요소 중에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2021년 1월 취임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환경을 선정하였으며,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뛰어들었다. 이는 해외에만 국한된 트렌드가 아니다.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 각 요소 중 환경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하였으며, ESG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이 26.7%로 1위를 기록하였다. 그만큼 ESG 경영 실현에서 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 일류 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ESG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과감한 탄소 배출 절감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겠다는 '탄소 제로화(Carbon Net Zero)' 선언을 하고 있다.

ESG 개념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시행하고자 하였지만,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 표준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환경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녹색 금융 추진 TF를 구성하고, 녹색 금융 분류 체계인 'K-택소노미(Taxonomy)'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상반기에 표준 환경성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국내 ESG 동향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기 시행, 2050 탄소중립 선언, 금융권의 탈석탄 선언 등이 있으며, 환경 부문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SG_사회(Social)

사회 측면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이 포함되며, 여기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로, 개인 및 조직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발전에 대한 개념이다. 정부는 2016년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13개의 대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문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기반하여 기업 ESG의 사회 부문 역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다루고 있다. 해당 부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이나 인력 개발과 관련된 인적 자본 항목, 부패 및 공정거래 등의 소비자 관련 항목,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등의 지역 사회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여부, 복리 후생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이 존재한다.

여러 요소 중 많은 기업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공급망 ESG이다. ESG 성과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 자체만의 성과뿐만 아니라 공급사나 협력사 등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성과가 포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관련 예시로 EU 집행위원회는 수출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기업 공급망 실사제도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부문에서는 고객정보보호시스템 및 고용 평등 시스템의 수립 등이 행해지고 있다.

ESG_지배구조(Governance)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와 기업윤리 보존, 반부패 등이 중요시된다. 또한 주주들에게 만족스러운 배당 및 정보 공시를 하는 것 역시 ESG 중 G, 지배구조에 포함된다. 평가지표로는 주주 의견 수렴 장치 여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이장의 분리, 감사위원회 사외 이사 비율 등이 존재한다.

지배구조는 모든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며, 그 중심에는 이사회가 있는 만큼 이사회 구성, 독립성 및 활동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정보공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는 2021년부터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며,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역시 투표 기준에 여성 이사 비율을 반영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성별 및 인종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